

### 다시 푸는 경서

#### 법구경 <결>

##### 길상품(吉祥品) ②

不慢不自大 불만불자대  
知足念反復 지족념반복  
以時誦習經 이시송습경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잘난체 얹으며  
죽함을 알아 되풀이 생각하고  
때때로 경전을 외어 익히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所聞常以忍 소문상이인  
樂欲見沙門 락욕견사문  
每講轉聽受 매강전청수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듣는 일은 항상 인욕으로써 하고  
사물 보기를 즐겁게 바라며  
설법 있을 때마다 잘들어 받드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持齋修持行 지재수법행  
常欲見賢聖 상욕견현성  
依佛明習者 의부명지자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계계를 지켜 청정행을 닦고  
항상 성현 보기를 원하며

若以棄非務 약이기비무  
能勤修適用 능근수도용  
常事於可事 상사어가사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만약 힘쓰지 않을 일 버림으로써  
능히 도의 쓰임을 부지런히 닦고  
항상 섬겨야 할 일 늘 섬기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一切爲天下 일체위천하  
建立大慈愍 건립대자의  
修仁安衆生 수인안중생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모든 것에서 천하를 위하되  
큰 자비의 뜻을 굳게 세워  
인덕을 닦아 중생을 편케 하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欲求吉祥福 욕구길상복  
當信敬於佛 당신경여불  
欲求吉祥福 욕구길상복  
當聞法句義 당문법구의  
欲求吉祥福 욕구길상복  
當供養衆僧 당공양중승  
欲求吉祥福 욕구길상복  
當具淨淨者 계구정정자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 듣는 일은 항상 인욕으로써 하고 도의 쓰임을 부지런히 닦아라

지혜 밝은 이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以言有道德 이신유도덕  
正意向無疑 정의향무의  
欲脫三惡道 욕탈삼악도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믿음으로써 도덕을 지니고  
바른 뜻으로 의심없이 나아가  
삼악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等心行布施 등심행보시  
奉請得道者 봉청득도자  
亦敬諸天人 역경제천인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평등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고  
도를 얻은 이들을 받들며  
하늘과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常欲離貪欲 상욕리탐욕  
愚癡顛患意 우치진에의  
能習誠道見 능습성도견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항상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내는 마음을 여의려하고  
능히 진실한 견해 익히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길상의 복덕을 구하고자 하거든  
부디 부처를 믿고 공경하라  
길상의 복 구하고자 하거든  
부디 법구의 이치를 들어라  
길상의 복덕 구하고자 하거든  
부디 대중스님들을 공양하라  
그러하여 계를 갖춰 청정한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智者居世間 지자거세간  
當習吉祥行 당습길상행  
自致成慧見 자치성혜견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지혜로운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길상의 행을 익히어  
스스로 지혜로운 소견 이루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梵志聞佛教 범지문불교  
心中大歡喜 심중대환희  
即前禮佛足 즉전례불족  
歸命佛法家 귀명법법중  
이에 범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  
고  
마음 속으로 크게 기뻐하여  
곧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  
하고  
불법승에 귀의하였다.

龍眼

### 도천스님 (화엄사 조실)

난 평생 내 몸 안 돌보고 살았어. 여기 대둔산 태고사에 와서 50년 가까이 불사만 하고 살았거든. 밤이 오면 밤인가 보다. 또 낮이 되면 낮인가 보다 하며 그저 일단 하고 산거지. 올해로 88세 미수라. 낫살 먹어 노스님이라고 찾아 오는 불자들이 궁금한가 봐. 왜 내가 일만 하는지. 뭐라더라. 나보고 '일하는 태고스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래구.

사실 50년 불사라고 생각해 봐. 그리고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사라. 원래 이렇게 크게 계속된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 하나 하나 하더래니 또 하나를 하게 되고 다시 또 할 것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온게 반세기를 끌고 온거지. 그리고 불사를 하면서 설계도니 그런 것 없이 해 왔어.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설계도고 공사 진행표니까. 내 머리 속에서 불사가 환해. 가만히 있어도 될 새 없이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나무를 쪼개고 기와를 생산할 사 두어야겠구나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쏟아내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짚을 짓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게야. 그리고 시냇물이 모아지면 그 길로 자재를 구입해 두고 결국 그것이 이 어러운 경제난리 속에서도 그나마 어렵지 않게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었던 게지. 내가 이렇게 불사라는 이름으로 일을 화두삼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도인이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라구. 즉, 도인의 인연불사를 하는 것이야. 이 가파른 산자락에 방사를 짓고 불사를 일으키는 것은 후대 사람이 편히 공부하고 수행하도록 터를 닦아두는 것이거든. 도인이 나오려면 여건이 성숙되는 인연이 기본인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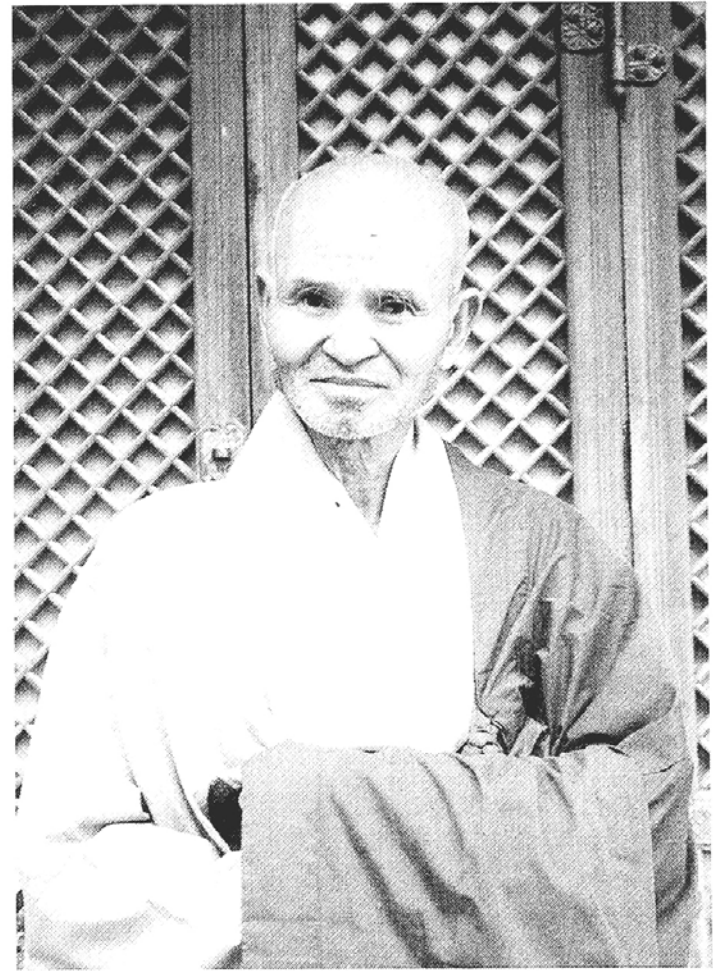
생각해 보라구. 땅을 물려주면 땅은 뱃기도 하고 팔이 없어지기도 하지. 그러나 공부하는 도량을 세워놓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 설사 스님이건 재가자건, 수행하는 이가 적고 또 없어진다 하더라도 도량만큼은 길이 보존된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절 주위로 땀 흘려 짓나무를 심었어. 6.25전쟁직후 마땅히 부처님께 마지막 선물도 없은 정도로 어려웠더구. 그때 생각한 것이 짓나무를 심어 쌀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 1년에 평균 1백주씩 30년 넘게 심었으니 전체로는 5천주 이상 될 것이야. 절 뒤로 저 산자락을 땀 흘려왔으니...시주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짓나무를 사서 재빠르게 심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산짐승들에게 먹이로 시주하고 있지. 열매가 익기도 전에 어느새 찾아와 다 따먹어 버

리거든. 단 한 번도 수확을 해보지 못했어. 어쨌든 그렇게 나무를 열심히 심었던 것도 좋은 도량에 먹을 것이 끊임없이 대출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지. 나는 반드시 우리 세기에 도인이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어. 내가 출가해 참선수행자가 되고자 했지만 인연이 닿지않아 평생 일하는 수행을 해 왔어. 지금 생각해 보면, 도인을 배출하는 도량을 일으키는 것으로 내 금생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야. 내 수행길에 대해 단 한번도, 단 한 순간도 후회하거나 회한이 들거나 한 적이 없지. 나는 이 도량을 통해 도인이 나올 것이라고 믿거든.

13살에 지중산 전생의 인연으로 출가를 했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평안북도 칠산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살면서도 그저 수도하려는 생각 뿐이었거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마음 깊이에 도인(道人) 만나기를 발원했던 것 같아. 어쨌든 동진출가한 것인데 그때는 집을 나서 백두산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지. 그런데 금강산 마하연에 발길이 닿는 순간

- 1911년 평북 칠산 초
- 23년 묵연스님을 은사로 금강산 마하연에서 득도
- 신계사 유점사 법왕사 등서 수행
- 해인사 범어사 등서 수행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현 총부 금산 태고사에 주석



### “요즘 사람들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호강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차 있으니 탐진치에 엮매일 수 밖에 없어요”

그 풍광에 반해 놀러 왔었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고 전에 내가 살았던 곳같아. 한마디로 바로 이곳이 내 수행터구나 싶더래구. 게다가 거기에 도려놓은 수월스님이 계시다니 얼마나 좋았던지. 그렇지만 수월스님은 영영 뵈지 못하고 스님의 상좌이신 묵연스님을 은사로 그곳에서 출가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할아버지 스님인 수월스님도 묵묵히 백장스님의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작이라는 청규에 엄격하였고 아버지이신 은사 묵연스님도 무성계 일하셨어.

수월스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남의 집 머슴을 사시는데, 몇날 며칠을 물레방아를 찼나 봐. 밤에 잠도 못주무시고, 아니 안 주무셨겠지. 물레방아를 찼던 거야. 그러나 얼마나 즐겼겠어? 어느날 집 주인이 보았다는데 큰스님께서 한 발은 틀어서 방아에 올려놓고 계시는데, 방아공이가 위에서 떨어지질 않고 그대로 허공에 멈춰 있었다는 게야.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나구. 그후로는 도인을 잘 몰라왔다고 늘상 얘기했더래구.

마찬가지로 나도 출가한 이후 그저 일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 정도로 열심히

히 일만 했어. 그러니까 어찌보면 수월스님의 한 가종이다 싶지. 금오 큰스님께 들은 얘긴데 북간도로 수월스님을 친견하러 가셨는데 신도가 많이 와서 방이 꽉 찼는데 수월스님은 그냥 나가 일만하시더라.

내 은사스님은 또 어느 정도이신가 하면, 평생 말이 없으신 분이셨지. 묵묵히 백장청규 정신으로 살아오신 셈이지. 오죽하면 법명이 묵연스님이셨겠나구. 은사스님은 내게 그저 말없이 일하면서 수행하라고 몸소 실천해 보이시며 가르치셨지. 그 가르침대로 산 것이 지금까지야.

금강산에서 살 때는 두루 사함을 돌아다니던 적도 있었어. 신계사 유점사에서 몇 철씩 나기도 했고, 묘향산 법왕사에서도 지냈지.

마하연에서 살다가 해방이 되면서 서울로 내려왔어. 당시 하동산스님을 모시고 살았지. 그러다가 몇 달후 동산스님은 범어사로 내려가시고 나는 다시 마하연으로 갔어. 이미 공산화된 젊은 사중 땅이 되고 모두 당에서 압수해 빼앗아갔

# Siddhartha

붓다의 時空을 찾아나선 봉성기획의 새로운 불교문화 탐구

석가모니의 탄생 연도마저도 100년 이상의 오차가 엄청난 현실에, 설화 중심의 붓다의 일생이 아닌 인간 붓다의 時空을 현대에서 재조명하는 현대인을 위한 만화 '싯달타'가 만들어 지고 있다.

삼천쪽에 달하는 대하물로 쫓아가는 인간 석가의 큰 족적들. 이제 극만화 세계에서 검증된 박봉성의 대가다운 도도함과 한컷의 그림과 한줄의 글에도 삼천배를 울리는 정성으로 만들어진 '싯달타'가 곧 여러분들 곁에 다가선다.

## 봉성기획

Bong Sung Planning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73-4  
TEL : 051)204-3095, FAX : 051)208-9484

## 한자찾기의 신혁명!!

# 8282

함께 빨리 찾는 漢字辭典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사전이 필요합니다

- 부수·음을 몰라도 찾을 수 있다.
- 총획대신 가로, 세로, 교차점으로 찾는다.
- 韓·中·日 발음특허출원, 편교감자법

가로편획(一) : 3개  
세로편획(丨) : 3개  
교차점(·) : 1개

「丨」자의 편교번호는 「33」이 됩니다.  
편교감자법은 간단합니다  
편교감자법은 쉽고 빠릅니다

8282 한자사전의 특색

- 표제자 7,000자
- 교육용 기초한자의 상세한 풀이, 필수 수록
- 2,000여종의 풍부한 자원(字源) 해설
- 표제자의 중국, 일본, 영어 음과 뜻 풀이
- 중국간자체 일람표
- 고사성어(故事成語) · 속어(熟語) 700선

아이마켓 주문시 24,000원에 구입가능 10권이상 주문시 정가의 10% 할인

가격 25,000원

언어문화

구입문의 : 아이마켓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51번지 일광빌딩 503호 전화 : (051)468-8581 팩스 : (051)464-0712